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1월 24일  
제2027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요한 18,37)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 미하이 문카치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나해)

제 1 독서 다니 7,13-14 |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다.

화답송 시편 93(92) |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제 2 독서 묵시 1,5ㄱ-8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께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음 요한 18,33-37 |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33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물었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35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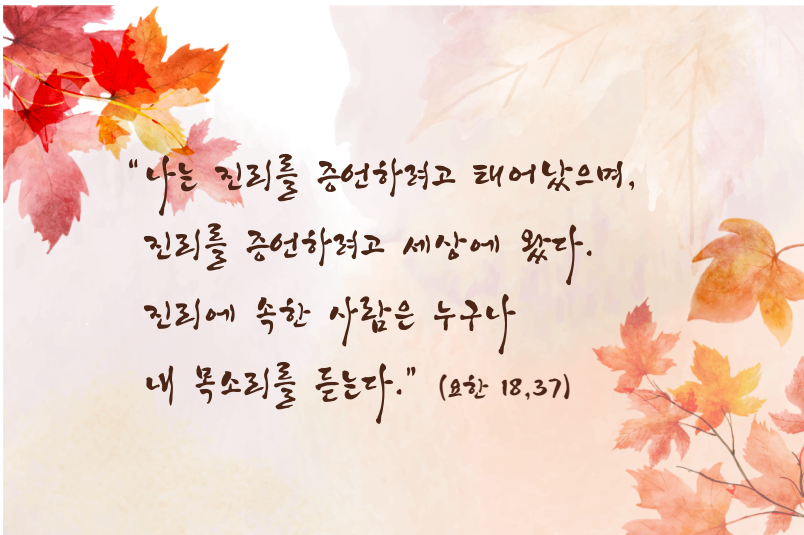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36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37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 복음 묵상

같은 단어를 써도 사람마다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살아야겠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이는 이를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이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떠올리고, 또 다른 어떤 이는 보편적 인류애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부여되는 ‘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왕’이라는 말에서 최고 권력자, 군림하고 억압하는 자를 떠올리며, 이를 그리스도께 붙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왕직을 말할 때는 거북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왕이라고 하실 때는 오히려 반대로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3)라고 하셨듯이 하느님 나라의 왕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왕의 권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이인데, 사랑이 가장 큰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며, 더 내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이 크신 주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이로 낮은 곳에 오셔서 당신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왕직을 실행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고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왕직은 그런 사랑의 봉사직입니다. 더 작고 낮은 이가 되어 더 많이 자신을 내주는 사랑의 봉사직입니다. (최정훈바로로 신부)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이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께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하셨다.

제40회 성서 주간(2024년 11월 24일-30일) 담화(부분)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지혜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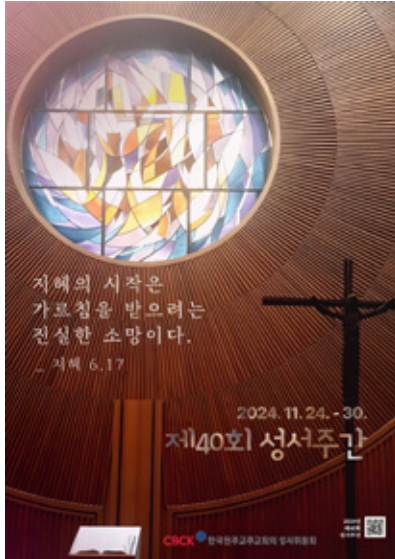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4년 성서 주간을 맞아, ‘성경을 깨달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는 주님께서’ (루카 24,45 참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성서 주간의 목적은 “모든 신자들이 성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성서와 친숙해지고”, 아울러 “1년 동안 선포된 구원의 말씀을 되새기고 감사드리며 새로이 시작되는 전례주년에도 변함없이 매일의 양식으로 성서를 받아들여자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려는 데” (제1회 성서 주간 담화, 1.2항) 있습니다.

첫째,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성사적 성격’을 깊이 숙고할 때, 말씀 선포에서 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도 현존하십니다. 말씀의 성사적 성격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신자들의 영성 생활과 교회의 사목 활동에 유익하기에, 고유한 직무에 따라 강론을 맡은 이들은 참으로 이 임무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56.59항 참조).

강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인공 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말씀의 성사적 성격’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강론은 그저 읽기 좋은 글이나 단순한 진리, 또는 지식을 신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례 안에서 선포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말씀은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느님 말씀은 강론에서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성령께서는 성직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그날의 말씀을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에 알맞게 적응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삶으로 말씀이신 주님께 응답하도록 재촉하십니다. 그러므로 편의와 효율만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강론을 맡은 이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을 연구하고 친교를 나누는 성서 사도직 현장에서도 인공 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다양한 성서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 관련 정기 간행물이나 주해서를 읽던 신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인공 지능은 만능열쇠와 같은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도구를 사용하여 성경 지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나눔을 통한 성장과 말씀 선포 이어지는 실천과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적 연구를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읽고 기도하며 묵상과 관상을 통하여 마침내

행동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히브 10,24-25), ...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지혜’는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마흔 번째 성서 주간을 함께 지내며 마음에 새겨 봅시다.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염원함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함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며, 법을 따름은 불멸을 보장받는 것이고, 불멸은 하느님 가까이 있게 해 주는 것이다”(지혜 6,17-19).

2024년 11월 2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해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올해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고 자주 읽으며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느님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1 루카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24일(일) 오전 11:30 (B-3,4)

**2 요한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24일(일) 오전 11:30 (B-1,2)

**3 구역 임원 회의**

- 일시 : 12월 1일(일) 오전 11:30 (B-1,2)

**4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 12월 1일(일) 오후 4시 (친교실)
- 대상 :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
- 문의 : 배성훈 디모테오 (703) 507-2492

**5 봉성체**

- 일시 : 12월 6일(금) 오전 9시부터

**6 파티마 세계 사도직 및 토요 신심 기도 / 미사**

- 일시 : 12월 7일(토) 오전 10:30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 신심 미사로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7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 12월 8일(일)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이번 대축일이 주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9일(월)을 의무 대축일로 지냅니다.

- 의무 대축일 미사 시간 : **12월 9일(월) 오전 11시, 저녁 7:30**

**8 2024 주일학교 CCD 가족 대림 피정**

- 일시 : 12월 7일(토) 오후 3시-오후 7시
- 장소 : 본당, 하상관
- 주제 : Joy, Hope, Blessing, Salvation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루카 1,46-47)
- 내용 : 성극, 성가, 찬양으로 함께하는 묵주기도
- 등록 : 주일 2시 미사 후 본당 입구
- 등록비 : 가정당 \$20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9 대림 만화영화 상영 - 더 크리스마스**

- 일시 : 12월 7일(일) 오후 3시 (친교실)
- 당나귀 “보”가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태워 가기 예수를 지키며 헤로데의 위협으로부터 성 가정을 보호하는 이야기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10 대림 특강**

- 아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더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대림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우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림특강 1: 12월 8일(일) 교중 미사 후
- 대림특강 2: 12월 11일(수) 오전 11시 미사 후
- 강사 : 이태섭(사도 요한) 신부님
- ※목요 기도회 안내 : 12월은 대림 특강이 두 차례 있기에 12월 5일(목) 목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당일 새벽 미사만 있습니다.

**11 대림 영화 상영 - 위대한 탄생**

- 일시 : 12월 13일(일) 오후 7:30 미사 이후 (친교실)
-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그린 영화로, 요셉과 성모 마리아의 믿음과 고난의 여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이야기

**12 2025년 매일미사 책 신청 / 제대초 봉헌**

- 2025년 개인이 사용할 매일 미사 책 신청을 받습니다.
- 1년 동안 성당에서 사용하게 될 제대초, 제병, 제주 봉헌을 받습니다. 주님 제단을 밝힐 제대초와 성체와 성혈을 이룰 제병, 제주를 봉헌하실 분들은 성물부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봉헌해 주시는 모든 봉헌금은 초와 제병, 제주 구입 및 성당에서 필요로 하는 제대꽃, 성물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동전 모으기 저금등 배부 (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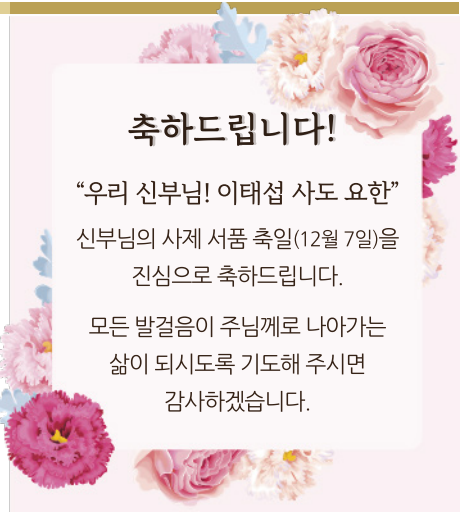
- 원주 카리타스 후원을 위한 동전 모으기 저금등을 대림 제1주일(12월 1일)부터 배부합니다.
- 대림 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 공헌 대축일 (1월 5일)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14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12월 1일(일)부터 본당 입구에서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를 받습니다.
- 문의 : 제대회
- 제대 꽃 봉헌금은 제대 꽃 봉헌 후 본당에서 필요한 성물, 미사 경본, 미사 독서 책, 제의, 제구 등의 구입에 사용됩니다.

**15 주일학교 CCD 첫영성체반 등록**

- 2025년도 첫영성체반 등록을 받습니다.
- 대상 : 3 - 6학년 주일학교 학생
- 등록 : [bit.ly/spc1st\\_2025](https://bit.ly/spc1st_2025) (12월 29일까지)
- 첫 수업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후 7시
- 수업 기간 : 2025년 1월 8일(수) - 6월 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8:30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교중미사 예물봉헌

11/24 이번 주	센터빌 1구역
12/01 다음 주	센터빌 2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1월 17일 (연중 제33주일)

봉헌금	\$ 7,957.00
교무금	\$ 18,500.00
교무금(신용카드)	\$ 5,450.00
감사 헌금	\$ 560.00
2차 헌금	\$ 4,108.00
온라인 봉헌	\$ 3,190.00
합계	\$ 39,76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보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5:00 - 6:00
- 2024년 11월 29일(금) 저녁 8:00 - 9:00
- 2024년 12월 01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가톨릭 텔레특강 :  
“부지깽이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 영산성당 김대중 베드로 신부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수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